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국제과학 비지니스 벨트, 오송첨단복합단지 등 미래지향형 성장인프라 구축에 따른 격상된 환경변화에 걸맞게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신 수도권 및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9년부터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어렵게 이루어진 두 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계약체결한 청주국제공항(주)에서 금년도 1월

16일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매각계약이 해지되면서 운영권 매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무산은 지방공항의 열악함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한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으며 향후 정부의 공항 민영화 정책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민영화는 시기상조로 우선 활주로 확장을 포함한 시설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내용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 시행계획”을 가결함으로써 사실상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무산된 바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정부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우리 충청북도 의회는 정부의 청주국제 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시설투자의 조속한 이행입니다.

그동안 공항 운영권 매각 추진으로 시설투자가 사실상 중단되어 시설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 확장, 화물청사 증축, 여객청사의 대폭적인 리모델링, 천안 ~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연장 등 시설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노선 다변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노선 확충, LCC 전문공항 지정, 에어로폴리스 조성지원 등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160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감안하시어,

청주국제공항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 운영권 매각 검토 이전에 공항 활주로 확장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3년 7월 17일

충 청 북 도 의 회